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 목)

Website: www.stfrancisk.org

청년 website: facebook.com/gropus/yagfyny

Email: stfrancisk.org@gmail.com

주임신부: Fr. Andrew Reitz, O.F.M

지도신부: 김성인 미카엘(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michaelkofm@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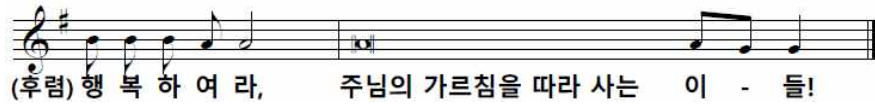
지도수녀: 김도경 첼레스틴(투스정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ohanleosb@gmail.com

사목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집회 15,15-20

[화답송]시편 119(118),1-2.4-5.17-18.33-34(◎ 1 참조)



(후렴) 행복 하 여 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 - 들!

- 행복하여라, 온전한 길을 걷는 이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행복하여라, 그분의 법을 따르는 이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는 이들! ◎
- 당신은 규정을 내리시어, 어김없이 지키라 하셨나이다.
당신 법령을 지키도록, 저의 길을 굳건하게 하소서.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
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가게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
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
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1코린 2,6-10

[복음환호송]..... 마태 11,25 참조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복음]마태 5,20-22ㄴ.27-28.33-34ㄴ.37

[성가안내]

- 입당성가 [468] 그리스도는 나의 바위
- 봉헌성가 [213]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 성체성가 [180] 주님의 작은 그릇
- 파견성가 [82] 주 찬미

미 사 봉 헌

● 영미사

이영우, 이태묘
정경업 세실리아
이종란 크리스티나, 한정수 비오
김준일 베드로, 김영복 아네스
김영복 아네스
김영우 요셉, 강건대 마리아 부부
엄창석 요한, 정인봉, 박은남
강건대 마리아, 박난성 요셉프란치스코
강복선, 최영준
조상호

봉헌

이상홍 스테파노
양지우 아네스
한진수 원선시오
김애희 테클라
손명희, 익명
김지영 유스티나
엄청자 요셉피나
강호영 안드레아
강호영 안드레아
민정신 아폴로니아

● 영미사

박현진 스테파노
이경자 벨라뎃타
진오도
이경자 올리안나
김영숙 카타리나, 김순한 루시아
김옥지 아가다, 전마지 마가렛
이진자 세실리아, 이재호 클레멘트
이종환 T.아퀴나스, 이정주 소화테레사
정창동 플라나

박기목 알버트
양업회
익명
김애희 테클라
양업회
양업회
양업회
양업회
양업회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영어복음	보편지향기도	봉헌	복사	성찬봉사
2월 16일	이영노 올리안나	민완준 필립보	김영희 안나	한채희 로사	장해라 마리스텔라	이주연 박보람	조소연 오윤서	박기목 박민재 유정욱 이영혜 안선정 강호영 채봉석 채미재
2월 23일	정동주 유스토	김진섭 야고보	원혜경 아네스	김진희 아델라	안수관 토마스	이하나 방상욱	신혜정 이아림	신윤길 신애송 신정목 이지훈 이규완 김승애 이은경 김종선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두 번째 토요일 오후 6:00 아래 성당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아래성당 고해소
혼인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세례	사무실 : 347-834-5784

[복음 묵상]

“신앙생활, 율법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것”

율법의 완성이란, '율법을 얼마나 많이 지키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율법의 뿌리까지 내려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곧 율법의 핵심인 하느님의 뜻에 다다른 것이다.

어느 드라마의 대사가 떠오른다. “네가 다른 여자 만나는 것만 배신이나? 네 마음속에 내가 없는 것도 배신이다.” 몸만 곁에 있다고 해서 연인이 아니듯 율법의 껍데기만 지킨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분의 뜻에까지 다다를 수 있어야 한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을 하는 사람은, 운동을 하는 것에서 오는 '심리적 위안'이라는 일차적 만족감을 체험한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사람은 결코 '건강'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일상의 기도를 달달 외우고 레지오와 소공동체 모임 그리고 미사에 참여한다는 것이 반드시 '신앙을 산다는 것'과 동일시 될 수는 없다. 때로는 다양한 영성생활 안에서 심리적 위로나 사람들로 부터 오는 칭찬에 만족한 채 진정한 신앙의 목적인 '하느님과의 만남'을 잊을 수도 있다.

과연 나는 기도생활과 공동체 활동 안에서 무엇을 열망하는가? 신앙이란, '하느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나무의 건강은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땅에 박혀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듯이 우리도 하느님이라는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나'라는 나무는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임상 경험이 풍부한 MD들이 시술합니다



미백레이저
리프팅/탄력
얼굴윤곽시술
웨딩케어
맨즈케어
메디컬스킨케어

Clear Laser CITY CLINIC
501 5TH AVE. #2011, NY, NY
212.697.1802

@ ID: clearlascity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자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COMPASS
Helena Park
Real Estate Broker
helena.park@compass.com
212-289-8899
110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1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 370-0394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EST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1AM-11PM/ SUN: 12PM-9PM)

인쇄·책출판
당일 인쇄가능
EDDM, Mailing Service / Yelp Email Marketing
T. 212. 971. 0212 / 268. 2776
208 W. 29TH ST., # 203, NY, NY 10001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BRYANT PARK DENTAL
2 WEST 46TH STREET SUITE 501 NY
212-779-3368
1585 PALISADE AVE FORT LEE
201-585-0404

맨하탄 미드타운 통증병원
==== **The Wellness Room** ====

물리치료사 : 김 미카엘
카이로프랙터/한 의사 : 김소피아
212-302-2692

광고주를 찾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처음 방문하신 분,
전입하신 분, 환영합니다!
: 다미아노 홀(성당 밖 좌측 20m)

'근현대 하느님의 종 81위' 시복·시성 과정의
마무리 작업을 위해, 한국교회사 연구소 소장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님과 연구원 이민석
대건 안드레아, 천강우 프란치스코 형제님
께서 방문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의 정기모임 및 행사]

- **구리아** : 오늘 모임은 아래성당 공사로
인해 2.23 또는 3.1로 연기합니다.
- **양업회** : 11시, 2층 컨퍼런스 룸
- **경애원 후원금접수** : 다미아노홀 입구

[다가오는 행사]

2020 FNYN 청년피정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 41,10)

삶에 지쳐있는 우리들이 과거 예수님의 실제
삶을 돌아보며, 하느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고요한 곳에 머물며 회복의 시간을 갖고
하느님의 뜻을 찾아보길 원하는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 장소 : 뉴튼 수도원
289 US-206, Newton, NJ 07860
- 일정 : 2.29(토)8am출발-3.1(일)오후 도착
- 참가비 : \$135
- 신청문의 : 유대건 미카엘 631.655.1733
cloudryu123@gmail.com /
Kakao카톡: cloudryu123

2020 FNYN 청년세미나

유학생 혹은 비자로 취업중인 청년분들을
위해, 이민법/세무보고에 관한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각 분야의 현장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와
회계사를 직접 모시고, 질의응답 및 개별
상담시간을 마련할 예정이오니 청년이 아니
더라도 위의 문제로 고민 중인 모든 신자
여러분들의 참여바랍니다.

- 장소 : 다미아노 홀
- 일시 : 3.7(토) 4-7pm
- 신청문의 : 유대건 미카엘 631.655.1733
cloudryu123@gmail.com /
Kakao카톡: cloudryu123

[모집합니다]

"성경말씀과 나" 원고를 보내주세요.

잔잔한 일상에 가슴을 뛰게 하거나,
우울한 날, 지친 날에 삶을 다독이던,
여러분에게 얼어붙은 바다를 쫓개는 도끼였던
하느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다?
그 흔적을, 울림을 공유하고 싶은 분을
기다립니다.

- 원고의 분량 : letter 사이즈 1장 이내.
(글씨크기 11포인트, 줄 간격 160%)

한국학교, 주일학교 교사

- 한국학교 문의 :
김민정 세라피나(917.887.5040)
- 주일학교 문의 :
김가연 크리스티나(347.882.2244)

청년 성가대 단원 및 반주자

- '처음처럼'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청년성가대는 매달 4번째 주일 미사를
담당하며 매주 주일 1시 반에 연습합니다.
-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매주 주일 오후 연습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음악 전공자를 찾고 있습니다.
- 문의 : 정동혁 미카엘(카톡 : cdh306)

미동북부 여성 제38차

꾸르실료 수강자 접수

- 일시 및 장소 : 4.23(목)-26(일), 뉴튼수도원
- 대상 : 영세 받은 지 3년 이상 된 여성신자
- 문의 : 신부님, 김승애 클라라(봉사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상, 순종, 사랑이 하나임을
체험하는 그분과의 귀한 만남으로 가톨릭
신자로서 단 한번만 주어지는 교육피정입니다.
여성 꾸르실료는 매년 4월, 남성은 10월에
각각 있습니다.

터키-그리스 성지순례

- 일시 : 2020년 5.11(월)- 5.25(월)
14박 15일(기내 1박 포함)
- 출발 : Washington Dulles 공항
- 경비 : \$3,900 예상
- 지도사제 : 윤 요아킴
- 문의 : 한기남 데레사 ☎ 703.674.6081

지난 주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 3,440 오지연 김보현 김수정 진홍섭 김택영 강영욱 안상민 전마지 김미화 박재호 유희순 장철순 황인자 황경숙 김기례 린다감 이영숙 성미나 김 이 이정자 유경자 고은경 홍봉운 임노엘 양미숙 윤복홍 박기목 이서원 유정옥 김차순 김성중 김현미 유대건 김진세
감사헌금	\$ 320 익명 김수경
복사기대여 기부금	\$ 1,000 강혜숙
합 계	\$ 4,760

❖ 꽃봉헌 : \$ 20 이정자

재의 수요일

2월 26일 수요일은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참회의 상징으로 재를 축복하여
신자들의 머리에 재 얹는 예식이 있습니다.
가까운 성당에서 미사참례바랍니다.

아울러 '재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에 모든
신자들은 금식재(만18세부터 60세까지)와
금육재(만14세부터 죽을 때까지)를 의무로
지켜야 합니다. 금식재[禁食齋]란 아침식사를
하지 않고 점심식사는 평소대로 하되 저녁
식사는 요기 정도만 하는 것을 말하고 금육재
[禁肉齋]란 육식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재의 수요일과 모든 금요일에 지켜야 합니다.

2월 성경 공부

수요일 19.26	2:30-3:45Pm 7:15-8:30Pm	클레어 룸
주일 16.23	1:30-2:50Pm	코리안 컨퍼런스룸

2020 교무금 책정을 하셨나요?

교회는 교회 운영비인 교무금을
신자들의 의무 중 하나라고 규정합니다.
교무금을 충실히 내는 것은
건전하고도 올바른 신앙생활의 표현이며
하느님 자녀로서의 도리입니다.
아직 교무금을 책정하지 않았다면
지금, 책정해보면 어떨까요?

성경통독을 위한 입문서 예약판매

지난 한 해 동안 주보를 통해 연재되었던
"성경맛보기"를 모아 책자로 만들 예정입니다.
원하시는 분은 도서성물부에 신청하세요.

[성경구절]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루카 5,31-32)

4년 전, 친구의 권유로 미동북부 청년성령기도회에서 하는 피정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가보는 피정이라 떨리기도 하였지만,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고요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머물 수 있다는 생각에 무척 기대가 되었습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가게 된 뉴튼 수도원의 첫날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밤하늘 가득히 채운 수많은 별들과 저를 따뜻하게 반겨주는 봉사자들은 제가 사랑 받는다는 느낌을 들게 해주었습니다. 어쩌면 나중에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 먼저 만나고 있는 것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다음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렉시오 디비나)이 있었는데, 눈을 감고 천천히 또박또박 전해주는 독서자의 말에 귀기울여보니 그것은 알패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시는 이야기였습니다(마르 2,14). 분명 어릴 적부터 들어서 다 아는 내용인데, 그날따라 문장 하나하나가 가슴 깊이 박혔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온화한 눈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며, 저 또한 이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에 초대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레위의 직업은 로마 총독의 위임을 받아 세금을 징수하던 세리로, 유대인으로서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지만, 예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갈망을 꿰뚫어보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레위의 입장이 되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체험한 레위의 마음이 얼마나 놀랍고 황홀했을까?’ 하며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신들은 어쩌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요?” 하며 투덜대는 바리사이의 말에 슬퍼졌습니다. 평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걱정을 많이 하는 예민한 성격 때문에 자주 우울하고 아파하는 제 자신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끄러운 마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깊어지기 전, 주저앉은 저를 일으켜 세우는 예수님의 힘 있는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루카5,31-32). 마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를 변호해주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제 병든 마음과 몸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천상의사가 되어 사랑으로 보살펴주시고, 친히 제 곁에 머물러주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 안에 머물며 제 속상했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리고 주님의 넓은 품에 안겨있는 듯한 포근함을 느꼈습니다. 제 약함이 오히려 천상 의사이신 주님을 끌어당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서지고 낮추어진 마음을 낮추어 보시나이다.”(시편 51)라는 시편 말씀처럼, 주님은 당신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십니다. 거룩한 성체로 저희 안에 오시는 주님은 제가 부끄러워서 보지 못하는 죄의 뿌리들을 볼 수 있게 펴 보여주시고 저희 상처에 거룩한 성혈을 부어주시고 싸매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호자로 보내주십니다. 저는 이 피정에서 만난 천상 의사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병든 이들에게 의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 하고 그분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그리스도의 영혼은 저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육신은 저를 구하소서.

그리스도의 성혈은 저를 취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흐르는 물은 저를 씻으소서.

그리스도의 수난은 저를 격려하소서. 오! 착하신 예수님, 저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당신의 상처 속에 저를 숨겨 주소서. 저를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저를 악한 원수에게서 보호하소서. 저의 임종 때에 저를 부르시고, 또 저를 당신에게로

오게 명하사, 당신 성인들과 한가지로 영원히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Anima Christi 그리스도의 영혼 기도) ♠

한반도 평화기원, 밤9시 주모경 바치기를 기억하세요^^

본당 게시판

[행사 후기] ♡청년 창세기 연수
지난 2월7일부터 9일까지 뉴튼 수도원에서 청년성서 모임 창세기 연수가 있었습니다.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김윤욱 루카 신부님이 지도해주셨고, 우리본당에서 23명의 연수생, 그리고 4명의 봉사자가 참석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하느님의 말씀에 맛들이고, 일상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김화자(소화데레사) 정인해(예로니모)
김순한(루시아) 김옥지(아가다)
전마지(마가렛) 이재호(클레멘트)
이종환(T.아퀴나스) 이정주(소화데레사)
정창동(폴리나) 김용기(요셉)
김동희(헬레나) 고종호(마태오)
홍봉운(바로로)

[감사합니다]

♡성경말씀과 나' 원고내신 분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
(시편 119,105)

김지원(데레사)

[추천도서]



정태현 지음

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삼분의 일이나 차지하는 비유를 연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과 사상을 똑바로 이해하는 지름길임을 역설하며, 비유의 저마다 독립적인 메시지를 자세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들 안에 숨겨진 주제와 메시지를 발굴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이 책을 도서성물부에서 만나보세요^^